

중 앙 회

제9차 정기총회 개최

본회는 올해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종오리 개량과 질병예방, 경쟁력 강화 및 소비홍보사업으로 모범업소 지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포스터제작 및 언론매체 홍보, 정책개발사업으로 자조금제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전업농 육성 경영자금에 오리업 포함, 위생도압 문제해결 등을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중점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본회는 지난 2월 21일 수원사무실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 및 수지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4천4백34만의 매출에 2천8백25만이 지출된 지난해 사업 및 수지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올해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4천6백48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는 올 사업예산중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짜여진 각지회별 회비 납부금 2천4백48만원중 15%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액키로 하고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지회가 회원들의 광고를 확충시켜 올해 추진할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수정했다.

또 올해 추진할 세부사업으로 지도교

육 및 홍보사업으로 정보지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교육홍보사업으로 사육관련 세미나를 1회 실시키로 했다.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종오리 개량을 위한 PS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질병예방사업으로 오리간염 백신 상용화에 의한 사육농가의 육용오리 폐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경쟁력 강화 및 소비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산 오리를 모범적으로 판매하는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국내산 오리와 수입육과의 차별화 유통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위해 포스터제작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책개발 사업으로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자조금제도 및 전업농 육성 경영자금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시정토록하는 한편 2003년 위생도압 시행과 관련한 오리위생도압 문제해결을 위한 도축장 건립 등을 건의하여 위생도압시행과 관련해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타가축육성을 위한 오리업 육성대책자료 제출

본회는 지난 3월 15일 오리업 육성을 위한 대책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기타가축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축산경영과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이 자료에서 본회는 오리업의 현황과 오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오리업 육성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했다.

이 대책자료에서 본회는 국내 오리업은 지난 91년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육량 및 소비량이 매년 70%이상 급성장하고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큰 축종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오리업은 정책측면에서 타축종에 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매우 미약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등이 전무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사육측면에서는 사육업계의 생산성이 매우 낙후돼 있고 사육규모또한 영세성을 면치못하며 출하가격 정산제도가 수당으로 출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화측면에서 종오리 개량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는 않아 품질좋은 새끼생산이 지난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유통측면에서는 소량 고마진 유통구조에 의한

가격상승 및 위생적인 도압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대책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 가축계열화 사업 추진에 의한 생산비 절감사업 ▲ 종오리 개량을 위한 사업 ▲ 자조금사업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등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법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위해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요리방법의 개발과 홍보용 포스터제작 지역별 소비 촉진대회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타63 종오리 관련 민원회신

본회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여주소재 미르네부화장에서 민원서류를 제출한 사항과 관련하여 ▲ 귀농장에서 사육중인 스타63 PS 종오리를 확인한 결과 외모상 개체간의 크기가 다르고 목이 크고 작으며 부리가 노랗고 그렇지 않은 것등 유관상 차이가 있으나 ▲ PS에서 생산된 육용오리의 0.4-0.6%의 오리가 품종의 특성대로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육성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장검정성적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 회신은 미르네부화장에서 지난해 4월24일 프랑스 그리므드사로부터 도입된 종오리 PS를 사육한 결과 품종의 특성대로 자라지 않는 종오리가 나타나고 종란을 생산하여 부화한 육용오리를 사육한 결과 0.4-0.6%의 오리가 품종의 특성대로 자라지 않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된대 따른 것이다.

축산단체 WTO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 협의회 참여

본회는 축산단체 WTO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 참여키로 했다.

본회는 지난 3월 3일 축협중앙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축산단체 WTO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축산업 보호를 위한 NGO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축산관련 14개 단체 실무자들은 차기 WTO 농산물협상에서 더 이상의 시장개방은 국내 축산업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농업협상에서 축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의 공조체제 유지에 의한 대정부 건의 등에 의해 축산업계

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95년 출범된 WTO 협상에서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100% 이상의 관세화가 추진된 반면 축산물은 40% 내외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므로서 축산업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초래되었고 차기 농산물협상이 잘못되면 국내 축산업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분기별 축산단체 WTO 실무협의회를 정례모임으로 열어 협상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대정부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축단협 회장단 회의를 통한 건의문등 축산발전을 위한 사항을 토의키로 했다.

임시총회 개최 6월3일 대전에서

본회는 지난 5월 4일 2천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오리업계의 현안문제 해결과 협회운영을 활성화하기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중국산 가금육수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에 따른 오리업계의 입장과 4개항에 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협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현실로 다가온 상태에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육과 국산육의 차별화 유통을 위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리고기 유통시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협회마크를 부착하여 포장유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수입육의 국산둔갑방지를 위해 농산물명예감시원제를 적극활용하여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이사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같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의 협회운영은 참여자만 손해본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참여회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로 탈바꿈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현재의 협회운영구조를 회비를 내지않고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은 과감하게 제명조치하여 회원을 정예화하고 또 협회 사업은 참여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중국산 가금육 수입과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제출

본회는 지난 6일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오리업계의 입장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서 본회는 최근 국내 축산업계는 67년만에 발생된 구제역 질병으로 축산업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부당국은 물론 전 축산업계가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방제대책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가금육의 수입재개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국내 발생된 구제역이 중국에서 수입된 건초류 및 황사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수의당국이 추정하고 있고 중국당국은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되자 국내산 육류의 수입을 즉각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는 쇠고기 등 타 축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끼쳐 국내 양축농가는 업친데 덮친 상황을 초래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은 구제역 파동이 충분히 수습된 연후에 수입을 재개했어야 함에도 서둘러 수입을 재개하는 조치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본회는 이에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당국의 신속한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고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본회는 ▲ 수입위생조건

에서 명시한 수입재개이전에 생산된 가금육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 ▲ 정밀검역을 강화하여 반입되는 중국산 가금육의 정밀검사기간을 최소한 6개월이상 실시해 줄 것 ▲ 중국산 가금육이 국산육으로 둔갑유통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 ▲ 중국산 가금육수입에 따른 국내 오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을 수립해 줄 것등을 촉구했다.

본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11일 회신에서 중국산 가금육의 잠정수입중단조치는 97년 홍콩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국내 가금산업의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그간 중국의 가금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음에 따라 WTO/SPS 협정문과 OIE 규정과 일본 등의 조치내용 등을 감안하고 과도한 조치로 인한 양국간의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입을 재개하는 동시에 과거보다 더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중국측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중국산 가금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금육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질병발생 상황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시 수입금지조치 등을 할 계획이며 금번에 수입재개되는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서는 검사계획에 의거 일정기간 강화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가금

육은 반송 또는 폐기 등을 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중국산 가금육 수입관련 기자간담회 및 농림부 방문

본회는 지난 5월4일 협회사무실에서 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하여 오리업계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회장은 오리업계의 사육동향과 국내 오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등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축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는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나회장은 중국산가금육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리업계의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문지 기자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본회는 지난 16일 나원주회장을 비롯한 송중하이사, 태명훈감사등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중국산 가금육수입에 따른 피해최소화에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수축산국장은 이 자리에서 오리업계의 현안문제를 듣고 「정부역시 피해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리업계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